

# 가계·비영리단체, 현금·예금 107조 육박

지난해 가계가 쌓아놓은 돈이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소득이 다소 늘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5년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99조2000억원으로 전년(93조5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6.1%)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8년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자금잉여는 예금과 보험, 연금, 펀드 등에 넣어둔 자금운용(226조9000억원) 금액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인 자금조달(127조6000억원)을 뺀 것이다. 가계 잉여 자금은 2013년 89조6000억원, 2014년 93조5000억원 등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

## 역대 최대 규모... 미래 불안 탓 씀씀이 줄인 것으로 풀이

이처럼 가계의 여유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출보다는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금운용 중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현금 및 예금규모는 106조7120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단기저축성 예금은 22조5120억원, 장기저축성예금은 20조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가계의 순저축은 7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소비는 부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동향 자료

에 따르면 평균 소비성향은 71.9%로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작용했다. 문소상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순저축이 늘어났다. 가계의 실물자산 매각 등으로 수익이 늘고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로 가계소득에 이전된 부분까지 합쳐서 자금잉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자금부족 규모는 전년보다 절반(-30조5000억원→15조원) 가량 줄었다. 공기업의 부채 감축 노력 등으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조달(107조1000

억원)이 19조7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자금잉여 규모는 22조3000억원으로 자본증권과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운용액이 늘면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경제주체(금융부문·국외 제외)들의 금융부채는 471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자산은 6894조4000억원으로 514조7000억원 늘었다.

그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42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6조6000억원 늘어나 정부와 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자산 증가액도 27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2.23배로 전년(2.24배)보다 소폭 하락했다.

(인진수기자)

## 카카오, 생중계 등 프로야구 콘텐츠 강화

카카오가 2016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야구 콘텐츠를 강화한다.

카카오는 1일 '2016 KBO리그 개막에 맞춰 스포츠 전문 채널인 '다음 스포츠'를 통한 PC·모바일 생중계는 물론 경기 관련 이벤트, 킬링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시즌 전 경기를 다음 스포츠 야구 중계 플랫폼 KBO 리그 게임센터(<http://sports.media.daum.ne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생중계한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 KBO리그 게임센터에서 생중계되는 경기를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웹채팅을 적용,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응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비더레전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안타를 칠 것 같은 선수를 하루에 한 명씩 예상해서 맞추는 이벤트로 50번 연속으로 적중하면 상금(총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KBO 공식 앱에서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번 시즌부터 다음 스포츠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기를 놓친 야구팬들을 위해서는 '3분 야구'를 마련했다.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뉴스, 포토, 네티즌 댓글까지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해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경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헤더 Talk'으로 상황 설명을 덧붙여 경기 쉽게 몰입할 수 있고 새롭게 추가된 스코어보드를 통해 특정 순간, 승부처 등 원하는 장면을 골라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김민근기자

## 오늘부터 여러 연금정보 한번에 조회 가능

오늘부터 자신이 가입한 여러 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국민연금포털과 사적연금포털을 연계해 기존에는 개별 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해야 했던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에서 개인연금 등의 적립 금액·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설명했다.

조회 항목으로 제공되는 사적 연금 정보는 ▲가입회사 ▲상품명 ▲납입보험료 ▲총납입액 ▲적립금 ▲연금개시일 ▲연금지급 종료일 등이다.

국민연금 정보는 ▲가입상태 ▲납부 연금보험료 ▲가용월수 ▲연금 기수급 여부 ▲예상연금월액 ▲연금개시연월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인진수 기자)

## KB국민은행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 실시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실시간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KB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실시간 계좌이체는 인터넷뱅킹의 즉시이체처럼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서비스다.

KB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물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없이 스마트폰 OTP 입력으로 거래가 완료된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결제할 때 이용 가능하며 1회 결제금액은 50만원 이내여야 한다.

서비스 가능 가맹점은 IC+의 결제장을 이용하는 약 1만 5000개의 네이버이 가맹점이며 앞으로 IC+와 KQ+의 결제장을 이용하는 전 쇼핑몰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진수기자)



## 샤오미가 선보이는 커브드TV

샤오미의 공식 파트너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마린에서 샤오미 신제품 런칭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시를 앞둔 '미 커브드 TV'를 선보이고 있다.

샤오미의 공식 파트너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마린에서 샤오미 신제품 런칭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시를 앞둔 '미 커브드 TV'를 선보이고 있다.

## 창립 54주년 수협 4대 사업중점 추진

### 사업구조개편·수산자원회복 등

수협중앙회는 창립 54주년을 맞아 올해 ▲사업구조개편 ▲수산자원회복 ▲노량진 시장 현대화 및 복합개발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활성화 등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수협은 올해 사업구조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고 미래 성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을 연 용산 HDC신라 면세점 수산물 전용관을 통해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수산식품 세계화도 앞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가대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내달 현지 법인 설립과 한국 수산식품 전용 판매장을 연다.

김인권 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존 협동조합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익 창출로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은 수협의 미래 백년을 이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 김형주 여수 수협 조합장, 정무한 명예수하식 수협 조합장이 어업인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건설에 힘쓰는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대령 칠탄산면 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인진수 기자)

## 비상장사 투자 금융사기 기승

### 서민들 투자금과 개인정보 빼돌려 주의 요망

돈 굴릴 곳이 없어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투자금과 개인 정보를 빼내는 범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사인 H사를 기술향 있는 기업으로 속여 투자를 추천하고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해 한다면 투자금과 개인 정보를 빼돌린 금융사기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경상남도 등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지인에게서 세계 최초의 자동증진 기술이 있는 H사 주식에 투자하라는 추천을 받아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내놓고 주식 교환증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비상장사인 H사가 "1년 이내에 기업공개(IPO)를 하게 되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10~30%의 유치 수수료를 추가로 주겠다"는 등의 설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지인 수십 명도 끌어들이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H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자동증진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고, 기업 공개를 위해 대표 주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또 상장 이후 주식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서 1300여 건에 달하는 증권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받아 행간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기술을 놓고 신성장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약정하는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3조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투자한 돈에 원금을 보장해준다거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거래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대표 통장으로 활용되는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반드시 공식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진수기자)

구독신청 288-9700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